

## < 제13회 입학식 식사 >

사랑하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3기 입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입학식이 이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13기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은 더욱 특별하고 애뜻하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쓴 채 면접을 보았던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입학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아주대 로스쿨 1학년 신입생으로서 예비법률가의 신분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주대 로스쿨 입학은 법률가가 되려는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경기도 유일의 법조인양성기관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잘 가르치는 로스쿨”이라는 명성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무척 힘들었던 2020학년도에도 아주대 로스쿨은 로클릭 3명 합격, 검사임용시험 2명 합격, 2학년생의 대형 로펌 킷펀 등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가인법정변론대회, 모의헌법재판, 특허모의재판에서도 많은 입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의헌법재판에서 11기 심현희 원생은 유일한 개인상인 우수변론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인 아주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성실하고 실력 있는 법률가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13기 여러분들도 잘 이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인 연암관 4층 로비 벽에는 1회 졸업생부터 9회 졸업생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졸업하는 제10회 졸업생 사진도 액자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여러분의 사진도 그곳에 다른 선배들의 사진과 함께 걸리길 기대합니다.

또한 연암관 3층 로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기부자 명단도 있습니다.

기부자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졸업생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약정하여 매년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선배들도 있고, 작년 초에는 졸업생 54명이 10년간 십시일반 2억 2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정하여 작년 2학기부터 재학생 4명에게 각 3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입학식 이후 곧바로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서 부원장님들이 잘 설명해주겠지만, 로스쿨 1학년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학년 교육과정은 변호사 시험 필수과목인 공법, 형사법, 민사법 등 이론 교육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 어떤 자세로,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로클릭 선발 시험이나 검사 임용 시험 및 대형 로펌 취업 등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은 물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자기 나름의 공부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부에 큰 자신감도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되면 공부가 참 어렵다는 것을 곧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1학년 때 조금만 한 눈을 팔면 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로스쿨 학습의 어려움이라는 예방주사를 먼저 놔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님)

로스쿨에서의 학습은 이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학 공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학부에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과 비교하여 법학 공부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공부해야 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법률 쟁점마다 학설도 많고 판례도 많습니다.

법률용어마저 일상용어와 비교하면 무척 까다롭고 낯설고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로 수험공부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학을 공부하여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이해한 내용을 시험 시간에 답안으로 작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법 사례형 시험을 예로 들면,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A4 용지 8면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의 답안을 빠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도 문제의 쟁점을 잘 찾아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이 있기에 여러분의 공부 방법론을 이에 맞추는 훈련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 1학년 때 조금도 한눈을 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만의 공부 방법론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론을 찾기 바랍니다.

아주대 로스쿨 교수님들은 과목별로 최적화된 공부 방법론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을 신뢰하고 따르다면,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잘 인도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의 길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아주대 로스쿨은 “입학한 학생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자세로 여러분이 입학하여 졸업하기까지 더 나아가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한 정신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방역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열람실은 가능한 한 개방하여 여러분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힘써주지 않는다면,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열람실 이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하나의 배를 함께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기 동기들은 서로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한 배를 같이 탄 공동체 구성원임을 유념하여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러분의 로스쿨 3년의 항해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여러분의 동기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기 위한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이 아주대 로스쿨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구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한영수 교수